

# 재계, 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 확산... '11월 집단면역' 속도

삼성·LG 등 대기업 도입·논의중  
접종당일부터 최대 3일 유급휴가  
중견·스타트업도 속속 휴가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백신 휴가 도입은 물론 임직원들 위한 다양한 혜택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은 백신을 최대한 많이 맞아 집단 면역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12%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6월까지 1300만명,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무리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간은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휴가를 주는 '백신휴가제'를 실시하는데 이어 현대차와 SK그룹도 백신휴가제 도입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일 노조와의 협의를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통해 백신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을 맞은 직원은 접종일과 다음 날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역시 1일부터 백신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도 백신휴가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등은 백신휴가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논의 중이다. 기아도 백신휴가제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백신휴가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차는 백신휴가제 도입과 관련해 내부 논의 중이다.

SK그룹 주요 계열사도 현재 백신휴가제를 실시한다. SK이노베이션과 SK종합화학, SK에너지, SKIET 등도 지난달 31일 백신휴가제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휴가일수는 접종 당일 하루이며 평소와 다른 근육통이나 발열과 같이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하루 더 쉴 수 있다. 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접종 3일 차까지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기본 1일에 이상 반응 시 최대 2일을 쉴 수 있다. SK텔레콤은 기본 2일에 이상 반응 시 추가 1일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그룹 지주사인 SK(주)는 백신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재계 주요 그룹도 직원들에 대한 백신휴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지난달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2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한화그룹도 모든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 내외의 접종휴가를 시행하고 있다.

LG상사와 판토스 등 LX그룹 계열사들도 백신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백신 휴가 도입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접종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최대 4일까지 지급한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은 접종 익일부터 총 2일간 유급휴가를 지원받게 된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경우 각각 2일씩, 최대 4일의 유급

휴가를 지급받게 된다.

여성 쇼핑 앱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패션 테크 기업 크로키닷컴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휴가 정책을 실시한다. 접종 당일 및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2일 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시 각각 이를 쉼 사내 휴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홈쇼핑도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최대 4일 사용이 가능한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 등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최대 14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여기어때까지 IT 업계도 임직원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백신을 접종한 구성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휴가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한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홍남기 "서민·실수요자 LTV 등 대출규제 내달 완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택담보대출비율〉

이달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공시가 9억 이하 경감세율 0.05%p ↓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완화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

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원)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원)는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

정부는 7월부터 진행될 3기 신도시 3만가구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를 마무리하고, 연내 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연우기자 ywi96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공매도 재개 한달... 개인참여 1.6% 불과

금융위, 일평균 거래대금 6882억  
외국인 거래대금비중 84.7% 달해

공매도를 재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외국인인 84.7%로 전년 대비 29.6%포인트(P) 늘었고, 개인은 1.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한 것에 그쳤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주식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와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달 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25조4000억원)의 2.7% 수준이다. 지난해 3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6542억원)이 전체 거래대금(13조7000억원)의 4.7% 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40%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한달간 공매도에 나선 것은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한달간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코스피4789억원, 코스닥 1038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 공매도 증가는 롱숏전략에 따른 매수·매도 확대 등에 기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롱숏 전략은 매수(long)와 매도(short)를 동시에 활용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반면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으로 지난해 3월 일평균 2860억원 대비 67%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개선되면서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평균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액은 지난해 3월 기준 1045억원에서 6월 기준 188억원으로 낮아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햇터라이프 T. 070-7204-4515**